**구로시오 해류**

높은 산들과 남쪽에서 오는 구로시오 해류가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 덕택에 야쿠시마 섬에는 매우 많은 비가 내려 푸르고 무성한 풍요로운 숲이 형성되었습니다. 구로시오 해류 표층의 빠른 흐름 또한 해양과 육지 양쪽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구로시오 해류에 대하여

구로시오 해류(‘구로’는 ‘검은’, ‘시오’는 ‘해류’)는 깊이 600~700m, 폭이 가장 넓은 곳은 약 200km나 되는 해류입니다. 구로시오 해류의 유속이 빠른 구역은 좁아서 약 40km 정도입니다. 이 해류는 필리핀 동해안 먼바다에서 시작되며, 보통은 타이완의 동쪽을 거쳐 동중국해로 들어가서 오키나와와 아마미 제도의 서쪽으로 북상하다가, 아마미오시마 섬과 야쿠시마 섬 사이의 도카라 해협을 통과하여 태평양으로 되돌아온 뒤, 북동쪽 방향으로 흘러 야쿠시마 섬과 다네가시마 섬 동쪽을 향해 갑니다. 구로시오 해류는 투명도가 높고 따뜻한 해류로서 온도는 장소와 계절, 또는 바람에 따라 변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5℃에서 30℃입니다. 한겨울에도 평균 수온이 19.2℃입니다.

구로시오 해류는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영양소와 미네랄을 공급하며 산호와 열대어는 이 따뜻한 물속에서 잘 자랍니다. 바다거북도 구로시오 해류를 따라 회유하며 산란하기 위해 야쿠시마 섬에 상륙합니다.

다이빙 및 스노클링

야쿠시마 섬의 구리오와 잇소 주변의 바다에서는 다이빙과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으며, 두 지역 모두 수중의 화강암층을 배경으로 온대 지역에 있는 아열대와 열대 어종들을 감상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운이 좋으면 바다거북과 함께 수영할 수도 있습니다.

구리오 해수욕장

구로시오 해류의 따뜻한 물은 구리오 해수욕장에서 가까운 바다를 흐르고 있어서 많은 열대어에게 최적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으로서는 해포리고기와 나비고기가 있습니다. 일본 환경성이 발표한 2010년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91종의 어류와 34종의 산호가 이 지역의 해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썰물 때에 구리오의 쓰카자키 타이드 풀은 치어, 말미잘, 산호, 성게, 불가사리를 볼 수 있는 천연 수족관이 됩니다.

오시는 법: 자동차로 안보 항구에서 약 42분, 미야노우라 항구에서 약 68분 또는 야쿠시마 공항에서 약 51분

잇소 해수욕장

잇소는 구로시오 해류가 만들어낸 풍요로운 먹이가 있는 곳에 이끌린 망치고등어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잇소 수역의 산호에는 하나가타산호류(*lobophyllia*), 하마산호류(*poritidae*) 조초산호, 이랑 모양 또는 프릴 모양의 사자나미산호류(*merulina*) 조초산호 등이 있습니다. 잇소 해수욕장은 바람과 조수의 흐름, 얕은 해저 등 조건이 좋아 인기 있는 다이빙 명소이며, 구로시오 해류가 야쿠시마 섬에 접근하여 수온이 올라가고 물의 투명도가 높아지는 7월부터 10월에 걸쳐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다이빙은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즐길 것을 권장합니다.

오시는 법: 자동차로 안보 항구에서 약 40분, 미야노우라 항구에서 약 14분 또는 야쿠시마 공항에서 약 29분

어업

야쿠시마 섬 주변 해역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어종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이는 구로시오 해류가 섬 남쪽에서 물고기는 물론이고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과 다른 영양분도 운반해오기 때문입니다. 주로 잡히는 물고기는 날치와 고등어지만 그 외의 특산물로는 게르치, 연어병치, 잿방어, 가다랑어, 닭게, 닭새우, 전복, 새우 등이 있어 계절별로 다양한 바다의 진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